

‘킹메이커’에 달려간 윤석열·이준석...김종인 모시기

김 전위원장 출판기념회 참석 윤 “국가 대개조 역할” 이 “대선 많은 역할 확신”

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15일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공개 행사에 나란히 참석했다.

김 전 위원장이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‘원톱’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을 것이 유력시되는 가운데 윤 후보와 이 대표가 일제히 러브콜을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.

선대위는 이번 주 중 주요 인선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김 전 위원장 등판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온다.

이날 오전 용산구 한 호텔에서 열린 김 전 위원장의 출판기념회에는 국민의힘 인사들이 대거 출동해 ‘김종인 모시기’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 엿보였다.

윤 후보는 추사에서 김 전 위원장을 향해 “국가 대개조가 필요한 시점에 또다시 김박사님께서 역할을 하셔야 될 때가 다가오고 있지 않은가 생각한다”고 말했다.

이어 “저 역시 정치에 입문한 지 얼마 되지 않았

습니다만, 어려운 정권 교체와 국가 개혁의 대장정을 벌여나가는 이 시점에서 그동안의 쌓아오셨던 경륜으로 저희를 잘 지도해주시고 잘 이끌어주시길 부탁드리는 마음을 갖고 있다”고 언급해, 선대위 합류를 사실상 공개 요청했다.

이준석 대표도 추사에서 2011년 박근혜 대선후보 비대위 시절 72세의 김 전 위원장과 27세일 때 처음 만난 인연을 언급하며 “비대위를 승리로 이끌면서 총선 승리를 할 때 즈음 이분에게 참 배울게 많았다. 길 저 스스로 느끼고 있었다. 이분이 하신 말씀 중 저에게 도움되지 않는 건 없었다”고 회상했다.

이어 “저에게 정치의 방법론이나 가야 할 방향에 대해 가장 많은 영향을 주신 분은 김종인 위원장이라 생각한다”며 “저도 이번 대선에서 (김 전 위원장이) 많은 역할을 해주실거라 확신하고 제가 최선을 다해 보좌할 수 있으면 좋겠다”는 말씀을 드린다”고 선대위 합류를 요청했다.

김 전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“나라의 방향타를 이끄는 정치적 리더십의 문제”를 거론하며 “해방 이후 지금까지 온전한 대통령이 하나도 없다.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고 부끄러운 일”이라고 말했다.

김 전 위원장은 이날 행사를 기점으로 정치 행보를 재개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, 윤 후보와 선대위 조직 구성과 인선에 대한 물밑 논의의 상황에 따라 선



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5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열린 만화로 읽는 오늘의 인물 이야기 ‘비상대책위원장-김종인’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김 전 비대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. 왼쪽부터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,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, 윤 후보, 김 전 비대위원장, 금태섭 전 의원,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. /연합뉴스

대위 합류 시점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. 한편, 이날 행사에는 이홍구-정운찬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·재계 인사와 정치 원로 등 300여명이

몰려 성황을 이뤘다. 당에서는 김기현 원내대표와 대선 경선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,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경선

당시 윤 후보를 도운 정진석·주호영 등 ‘진운계’ 중진 의원들이 자리해 눈길을 끌었다. /연합뉴스

李·尹 정책격돌 1R 부동산...국토보유세 도입 vs 종부세 재검토

‘부자 감세’ vs ‘서민 증세’ 여론몰이 ‘프레임 대결’ 확산

더불어민주당 이재명,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본격적인 정책 대결에 나선 가운데 첫 전장은 ‘부동산’이 된 형국이다. 두 후보는 이번 대선 정국의 최대 현안인 부동산 문제를 두고 벌써 뚜렷한 이견을 노출하며 표심 잡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.

두 사람은 세계개편은 물론 주택공급 방식에서도 해법을 달리하고 있어 내년 3월 대선까지 두 후보간 치열한 부동산 정책 격돌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. 아울러 부동산 정책 경쟁이 증세-감세 논쟁으로 확대되면서 양 진영간 여론전을 위한 ‘프레임 싸움’도 거세 전망이다.

◇ 李, 국토보유세 도입 vs 尹, 종부세 재검토=

이 후보는 부동산 불로소득 타파를 전면에 내걸며 그 수단으로 국토보유세(기본소득 토지세)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. 모든 토지에 세금을 매겨 세수 전액을 본인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 예산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. 아울러 국토보유세 도입을 통해 현재 부동산 보유 실효세율 0.17%를 1.0% 수준까지 끌어올려 투기수요를 잡겠다는 목표다.

반면 윤 후보는 경선 때부터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를 포함한 세 부담 완화를 위한 대대적 세제 개편을 예고하고 있다. 윤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“대통령이 되면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할 것”이라고 공언하고, “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”고 밝혔다. 종부세를 아예 폐지할 수도 있다는 구상이었다.

◇ 부자 감세 vs 서민 증세...여야 ‘프레임 대결’ 예고= ‘국토보유세 도입’과 ‘종부세 재검토’의 충돌

들은 증세나 감세나라는 논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엿보인다. 이 후보는 윤 후보에게 ‘부자 감세’ 프레임, 반대로 윤 후보는 이 후보에게 ‘서민 증세’ 프레임을 씌우면서 여론몰이 경쟁을 펼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.

당장 이 후보는 15일 페이스북에서 “토지 보유 상위 10%에 못 들면서 손해 볼까 봐 기본소득 토지세를 반대하는 것은 악성 언론과 부패 정치세력에게 놀아나는 바보짓”이라고 주장하며 야권발 ‘세금 폭탄론’을 정면으로 반박했다. 이어 “국민 90%는 내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아 이익”이라고도 했다.

이를 두고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야권에서는 국민의 1대 9로 갈라치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. 윤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“국민의 급격한 보유세 부담 증가를 해소하겠다”, “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낮춰 보유세가 급증하는 것을 막겠다” 등 세 부담 완화를 거듭 약속했다. /연합뉴스

윤호중 “내년 예산안에 방역지원금 등 포함”

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15일 “민주당은 일상회복 (방역)지원금, 지역화폐 확대 발행,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책 확대 등 3대 패키지를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까지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시키는 수정안을 추진하고 있다”고 강조했다

다.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“내년에는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가 있어 신속한 상황 대응이 어렵다는 점에서 위기 대응 역량을 내년도 예산에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

다”고 강조했다. 윤 원내대표는 “예결위는 내일부터 예산조정소위를 열어 감액심사에 착수할 예정이지만 아직 6개 상임위만 예결위에 심사 결과를 넘겼다”며 “회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. 야당은 시간만 끄는 예산안 심사로 또다시 허송세월하지 말길 바란다”고 말했다. /오광록 기자 kroh@kwangju.co.kr

윤석열, 호남 무소속 이용호에 “같이 하자”

조찬 회동서 ‘러브콜’ 李는 민주당 철퇴로 화답

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15일 전북 남원-임실-순창 출신 무소속 재선인 이용호 의원과 조찬 회동을 했다. 선대위 출범을 앞두고 ‘호남 끌어안기’를 통한 외연 확장에 공을 들이는 차원으로 해석된다. 애초 공언한 ‘더 큰 선대위’를 꾸리기 위해 당 밖 인사들과 접촉면을 넓히는 모습이다.

윤 후보는 이날 오전 광화문 한 식당에서 이 의원과 비공개로 만나 선대위 합류를 제안했다. 그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“전부터 전화도 하고 해서 모르는 사이가 아니다”라며 “이 의원으로부터 민주당 복당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취지의 얘기를 들었다”고 밝혔다.

윤 후보 측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“윤 후보가 외연 확대 차원에서 이 의원 영입을 설득하고 있다”며 “이 의원이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안다”고 전했다.

앞서 윤 후보는 대표적 호남 중진인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과 김동철 전 의원의 지지 선언을 끌어내고, 선대위와 별도로 국민통합위원회 신설 계획도 밝혔다. 오는 20일을 전후해 선대위를 출범시키는 것을 목표로, ‘데드라인’까지 외연 확장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는 게 윤 후보와 가까운 참모들의 설명이다.

이 의원도 이날 보도자료에서 “민주당 복당 신청을 철회하고 저의 거취를 원점에서 숙고하겠다”고 밝혔다. 그는 “민주당 내 계파주의, 기득권 정치, 지역 패권주의 때문에 제 복당 문제가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”며 “민주당 지도부에 유감을 표한다”고 했다. 이어 “민주당은 그동안 호남, 특히 전북 발전에 신경 쓰지 않았고, 민주당에서 호남 정권이 실종된 지 오래”라고 지적하기도 했다.

이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“민주당이 이유 없이 수모를 준 데 대해 더는 인내하기 어렵다”며 “거취는 주변 의견을 듣고 결정할 것”이라고 말했다. 이 의원은 오후 국회에서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“제가 여권 인사로 분류되어 있으나 지금부터 더는 여권 인사로 분류를 안 해도 되겠다”며 “이달 하순까지는 제 거취를 결정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조찬 회동에서 윤 후보는 “같이 하자, 도와 달라”는 이야기를 했으며, 이 의원은 “민주당 복당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이제 그 부분은 철회하고 오늘부터는 국민의힘에도 문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고 답했다”고 전했다. 민주당 이재명 후보로부터도 “함께하자, 도와달라”는 내용의 전화가 왔었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. /연합뉴스

인터넷 광주일보

www.kwangju.co.kr

장성 토지(매매 분양)

광주에서 20분(6M도로접), 장성댐 (호) 2분, 장성 IC. 5분 (150평, 200평, 500평, 950평), [전원주택, 물류창고, 주말농장, 별장, 투자적합]

010-6670-9800

광주보청기 난청센터

보청기

무료체험

직접 체험 후 결정!!

- ✓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
- ✓ 웅웅~ 울리지 않는 보청기

062)362-3336

광주 동구 대인동 183-2번지 (한미쇼핑사거리)